

도솔암·대자암 삼화불교 사찰로 ‘둔갑’

‘조계종 삼화불교’, 홈페이지에 소속사암 표기 ‘물의’

‘조계종 삼화불교’가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 타종단 소속 사찰을 자신의 종단 사찰처럼 허위로 게재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조계종 삼화불교’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종단 명칭과 삼보륜 표장을 도용한 바 있다. 지난 2008년 서울중앙법원의 합의조정으로 ‘대한불교조계종’ 명칭과 삼보륜 표장을 사용하지 않기로 불교신문에 사과문까지 게재했던 곳이라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더욱 더 커지고 있다.

군산 성불사 주지 종걸스님은 “최근 삼화불교 홈페이지를 살펴보다 조계종 사찰을 자신의 종단 사찰로 소개해 놓은 몇 건을 확인했다”면서 “해당 사찰과 조계종의 명예를 실추시킨 만큼 시정을 위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혜오스님도 “변호사와 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전 원로의원 도전스님(화엄사 조실)이 1950년대 중반부터 50여 년간 수행정진했던 사찰이다. 또한 선학원 소속 사찰인 춘천 총원사,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사찰인 강릉 목유사 등도 ‘조계종 삼화불교’ 등록 사찰이 아님이 확인됐다. 이같은 사례는 삼화불교 홈페이지에서 소속 사찰이라 소개된 사찰 가운데 일부 조사한 것으로써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도솔암을 소속사찰로 표기한 삼화불교 홈페이지.

삼화불교 홈페이지를 통해 삼화불교 소속 사찰이라고 허위로 소개된 해당 사찰의 스님들은 종단 제과시를 위해 타종단 사찰 이름까지도 “변호사와 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화불교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삼화불교에서 보내주는 기관지 신문마저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총원사가 삼화불교 소속 사찰이라는 말도 안되는 짓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기획실장은 지난 22일 오전 본지와 통화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재 진위를 파악 중”이라며 “2~3일 내에 결과를 연락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 폭로 중단을 회유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진 ‘조계종 삼화불교’ 총무원장 헤인스님과 ‘대한불교조계종’은 관련이 전혀 없다”고 지난 18일 입장을 발표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조계종 삼화불교 총무원장 헤인스님이 삼화불교대학 학장 명의로 승려증과 사찰등록증 등을 임의로 발급하다 지난 2002년 8월 조계종에서 탈퇴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조계종 삼화불교’는 ‘대한불교조계종’의 명칭과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다 지난 2008년 서울중앙지법의 합의조정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에서 현재의 ‘조계종 삼화불교’로 바뀐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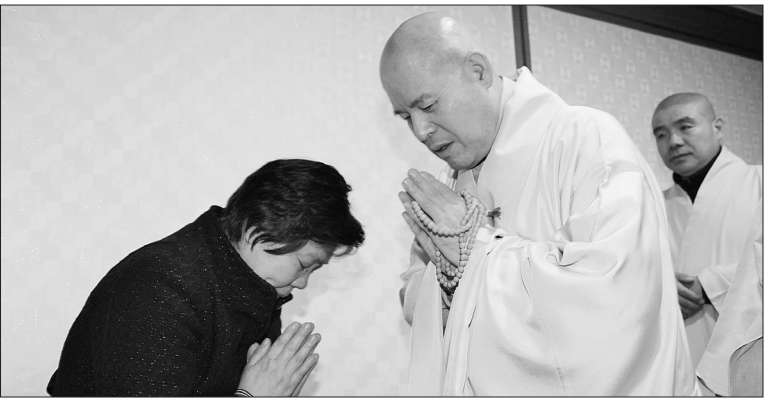
제10대 전국비구니회장 명우스님이 지난 21일 서울 수서동 전국비구니회관 대법당에서 봉행된 취임법회에서 “초심으로 돌아가, 승가 본연의 화합정신을 항상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환자 의료비 ‘지원’

동국대병원 자원봉사회

동국대학교병원 자원봉사회(회장 한기화)가 저소득층 환자를 위한 보시행에 나섰다. 한기화 자원봉사회장은 지난 14일 이진호 동국대 일산병원장을 만나 10월17일과 18일 이틀간 진행한 ‘제4회 환자돕기 자선바자회’ 수익금 425만9910원을 전달했다.

병원측은 “이번에 전달된 바자회 수익금으로 희귀질환으로 중환자실 치료중인 10살 된 환자 가족, 뇌출혈로 치료중인 두 아이의 엄마, 간암 말기로 요양 중인 남편과 중환자실 치료중인 환자 가족, 지지가족 없이 홀로 수차례 수술치료를 반복해 온 30대 남자환자 등 총 4명의 저소득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1일 박세정 아름다운동행 배분팀장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총무원 장례 정성 다하라”

총무원장 자승스님, 박세정 팀장 분향소 조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0일 불의의 사고로 별세한 고(故) 박세정 아름다운동행 배분팀장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1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306호실을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영정에 헌향한 뒤 고 박세정 팀장의 어머니의 손을 잡고 “뒤편고 위로의 말씀을 건네야 할 지 모르겠다”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은 재부부장 도문스님, 문화부장 진명스님, 호법부장 혜오스님 등 교역직 및 일반직 종무원 40여 명과 함께 한글 반야심경을 봉독하며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분향소를 떠나면서 총무원들에게 장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총무원장 스님은 장례를 여범하게 치르기 위해 조계종 총무원과 함께 상조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재향군인회 상조회에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조계종 직할교구는 지난 22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동안거 제1차 포살법회를 봉행하며 청정승풍 진작에 나섰다.

청정승가 공동체 ‘서원’

직할교구 동안거 포살법회 봉행

“대중 가운데 보살계를 받치 아나한 이아 청정지 못한 이는 없습니까.” 조계종 직할교구는 지난 22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기 2555(2011)년 동안거 제1차 포살법회를 봉행하며 각자의 수행을 점검하고 청정승풍 진작에 나섰다.

지난 2008년 3월 제정된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에 의거해 이날 시행된 직할교구 1차 포살법회는 교수사인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스님이 <범망경보살계포살본>을 봉독하며 수행자로서의 청정한 언행

과 지계를 강조했다. 이날 포살법회에 참가한 직할교구 소속 240여 명의 스님들은 교수사 지원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각자 계율을 지키고 살았는지 스스로 되물은 뒤 청정한 승가공동체의 일원이 되겠다고 다시 한번 서원하며 웅장한 목소리로 조계사 대웅전을 장엄했다.

전국 각 교구본사와 군중특별교구, 동국대, 중앙승가대 등은 2012년 2월6일까지 각각 포살법회를 봉행하며 소속 스님들의 수행을 점검한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소통-참여 공동체 만든다

명우스님 제10대 전국비구니회장 취임

전국 6000여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과 포교를 이끌어갈 제10대 전국비구니회장 명우스님이 지난 21일 취임법회를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전국비구니회는 이날 서울 수서동 전국비구니회관 대법당에서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10대 회장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10대 회장에 취임한 명우스님은 취임사에서 “비구니의 위상을 정립하고, 범용사를 비구니들의 종합도량으로 쇄신하는데 주력하겠다. 이를 통해 비구니 스님들의 소통과 참여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활동방향을 밝히고 “초심으로 돌아가, 승가본연의 화합정신을 항상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8년간 전국비구니회장을 역임한 명성스님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8년간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에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고 지난 임기 중 활동을 회고하고, “명우스님은 목동청초년회관 관장, 전국비구니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

하면서 비구니회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분”이라며 “비구니회 성장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취임사에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치사가 이어졌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우담바라회로 시작한 전국비구니회는 지난 43년간 우리 종단의 6000여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과 포교, 교육을 이끌어왔다”며 “자각은 한국불교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됐다. 지금 전국비구니회는 변화와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졸탁동시(喭啄同時)’의 화두처럼 화합을 통해 자각을 일깨우며, 비구니회 발전을 위해 사부대중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스님, 원로의원 혜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군중교구장 자광스님, 생령나눔실천본부 일면스님, 조운선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 ‘송년의 밤’

귀의삼보 하옵고,

신묘년을 보내며 중앙승가대학교 동문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송년의 밤을 개최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모교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꼭 함께 해주시어, 한국불교 교육중흥의 중심도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주시길 바랍니다. 겨울바람이 매서워졌습니다. 건강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일 시 _ 2555(2011)년 12월 14일(수) 오후 5시

❀ 장 소 _ AW컨벤션센터 내 하림각 3층 에메랄드홀(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62-3)
☎ 02)396-7000 www.wconventioncenter.co.kr

❀ 문 의 _ 동문회 사무실
☎ 02)922-7881, 010-7303-7881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장 원정 합장



동문 교구본사 주지

성문스님(동화사)(1기)
원혜스님(마곡사)(1기)
정수스님(봉선사)(3기)
종상스님(화엄사)(4기)
정법스님(월정사)(5기)
원행스님(금산사)(5기)
원종스님(관음사)(5기)
법각스님(대흥사)(9기)

동문 중앙총회의원

동문 총회의원 모임
회 장 : 법광스님
부회장 : 초격스님
간 사 : 정산스님

상덕스님(을 원)(3기)
일운스님(선 원)(3기)
탁연스님(문 화)(3기)
법광스님(법 제)(4기)
덕수스님(관음사)(8기)
법해스님(문 화)(8기)
정인스님(조계사)(8기)
원경스님(송광사)(8기)
정산스님(문 화)(9기)
견진스님(마곡사)(9기)
영관스님(화엄사)(10기)
지홍스님(사 회)(10기)
태권(선광)스님(은혜사)(11기)
환중스님(동화사)(11기)
정성스님(해인사)(12기)
삼해스님(월정사)(12기)

성행스님[포 교](12기)
초격스님[봉선사](12기)
종선스님[통도사](13기)
정도스님[포 교](14기)
월광스님[관음사](15기)
정원스님[법주사](15기)
오심스님[통도사](16기)
종민스님[복 지](20기)

중앙승가대학교 후원회

기획운영위원장 : 동문회장스님
기획운영위원 : 혜운스님(1기)
송강스님(3기)
정안스님(3기)
정륜스님(3기)
혜성스님(6기)
진효스님(9기)
정산스님(9기)
미산스님(교수)
김상영(교수)

중앙승가대학교 동문 소임자

법인사무처장 : 정인스님(8기)
법인사무국장 : 덕림스님(15기)
총무처장 : 진효스님(9기)
총무국장 : 법상스님(13기)
교학국장 : 송하스님(15기)

중앙승가대학교 부설 운영기관

개운사주지 : 법해스님(8기)
보타사주지 : 초우스님(8기)
보육교사교육원장 : 자용스님(5기)

자비복지타운원장 : 묘전스님(15기)
승가원원장 : 동욱스님(20기)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

명예회장 : 법상스님(1기)
동문회장 : 원정스님(3기)
수석부회장 : 정진스님(3기)
법광스님(4기)
차석부회장 : 현관스님(5기)
혜성스님(6기)
공운스님(7기)
묘근스님(9기)
보화스님(10기)

감사위원장 : 송강스님(3기)
선거관리위원장 : 원정스님(4기)
감사위원 : 정진스님(5기)
원우스님(6기)

사업본부장 : 공운스님(7기)
기획실장 : 원정스님(8기)
사무처장 : 정산스님(9기)
사무국장 : 법상스님(13기)
기획국장 : 불일스님(12기)
재무국장 : 법운스님(20기)

9개 분과위원장

국제교류분과 : 진옥스님(3기)
청초년·포교분과 : 자용스님(5기)
교육·수행분과 : 원소스님(7기)
환경·인권분과 : 법일스님(8기)
문화·의례분과 : 미동스님(9기)
통일·사회분과 : 진효스님(9기)
다문화·노동분과 : 만초스님(10기)
복지·봉사분과 : 지홍스님(10기)
종무·행정분과 : 초격스님(12기)